

어린이 책꽂이

▲스티븐 모리스 이야기=입양아가 미국 우주항공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기까지의 성장기를 다룬 동화. 강원도 출신의 스티븐 모리스 이란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 책은 어려운 성장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을 준다. <진선아이·8천원>

▲고우영의 서유기(전3권)=국립민화각으로 불리는 고우영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만끽할 수 있다. 중국 4대 서사 가운데 하나인 '서유기'의 광활한 스케일과 역동성이 고우영의 탁월한 입담과 예리한 펜끝으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자음과 모음·각 7천500원>

▲이주 오래된 옛 이야기=수백편의 우리 옛 이야기 중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골라 묶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건진 토끼, 무엇이든지 만들어 내는 뱀들을 훔쳐 먼 바다로 떠나는 도둑 등 흥미로운 이야기 18편이 수록됐다. <은하수 미디어·1만원>

▲도둑=올해로 26주년을 맞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5·18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 경상도 두 메산골에 사는 주인공의 성장기를 통해 동심과 순수를 찾아간 80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담았다. <한겨레아이들·8천원>

▲웨이사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셀계상의 실수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30층 건물 학교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과 웃음을 그려냈다. 비현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등장인물들을 통해 어린이에게는 재미와 웃음을, 학교와 사회에는 기발한 풍자를 던진다. <침비·8천500원>

통일은 사람과 사람사이서 완성된다

통일독일을 말한다 1·2·3 김누리 등 지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노래다. 학교에서, 인기 가수의 레코드판에서 질리도록 들어왔다.

이 노래의 생명은 통일까지다. 그후론 어떤 소원이 생길까. 어쩌면 '우리의 소원은 사회·문화적 융합~'이란 내용의 노래를 불러야 할 지 모르겠다.

지구 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바라보는 독일 통일은 부러움의 대상인 동시에 '참고서'이기도 하다.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김누리 교수 등 연구원 10여명이 집필한 '통일 독일을 말한다' 3부작은 독일 통일 15주년을 맞아 날로 심각해지는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추적, 통일 독일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1권 '머릿 속의 장벽-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편은 연구원 10명이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동 집필한 연구 논문을 모았다. 저자들은 독일이 성공적인 정치·경제적 통합을 했음에도 사회·문화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들려주었다.

2권 '변화를 통한 접근-통일 주역이 돌아온 독일 통일 15년'편은 연구원들이 베를린 자유대학 '동독 문제연구소'의 협조로 지난해 초 1개월 동안 독일을 통일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동·서독 유명 인사 21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었다. 동독 출신 국회의장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 저항시인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 동독 과거청산을 이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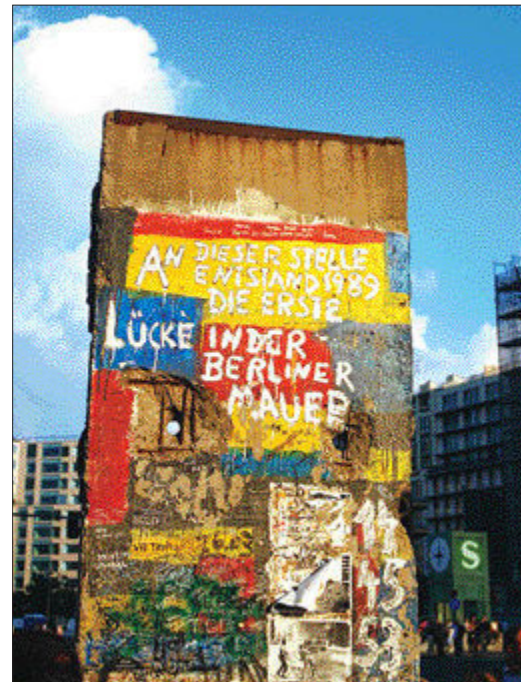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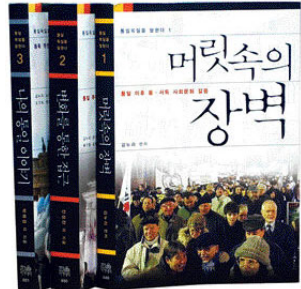
시민운동가 요아힘 가옥(Joachim Gauck) 등 이들은 독일 현대사의 산 증인들이다.

3권 '나의 통일 이야기-동독 주민이 말하는 독일 통일 15년'편은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은 구체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터뷰 모음이다. 연구원들은 지난 2004년 초 동독 드레스덴 대학 '한나 아렌트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36명의 평범한 동독 사람들과 그룹 인터뷰

동·서독 주민들간 사회·문화적 갈등 분석한 종합 보고서

를 했다.

통일 독일에 살고 있는 동독 사람들은 "통일이 동독인의 일상에 가한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 15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을 '제 나라 안의 이방인'으로 느끼고 있으며 "2류 인생보다 못한 3·4·5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베를린 장벽. 통일 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서독 국민 사이의 괴리는 남아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통일은 종잇장 위에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한울아카데미·각권 1만5천원·2만원·1만3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정목스님의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

"달이 두번 바뀔 동안 이웃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지 전에, 그 이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이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놓았다.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간질을 하거나 거짓으로 남의 사정을 말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가지 악행의 한가지인 '양설(兩舌)'이라 말하고 있다.

이런 함담을 접하면 마음이 동요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원숭이가 산다'고 일러온 까닭이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분주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일면 잔잔하던 수면에 큰 물결 잔물결이 일듯 우리의 마음자리도 그렇게 일어나고 흔들리는 '파랑' 같은 것이다.

세상은 바쁘고 따라다닐 것은 많고 그래서 내가 선 자리를 되돌아볼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책 한 권을 권한다. 정목스님이 쓴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랜덤하우스 중앙 펴냄). 이 책은 찰지는 순간부터 또는 순간까지 찰다란 생각을 밀

험담에 동요하지 말라



쳐내고 시종 평정심을 유지케 한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험담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처방을 내릴까. 한마디로 '묵빈 대처'하라고 이른다. 만일 지금 억울하거나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마주쳐 대응하지 말고 묵빈 대처하라고 이른다.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부정적

인 에너지는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속적 관심, 이룰데면 우리가 명예라고 부르는 명성의 화려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애써 말한다. '명예와 이익의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 빠져 들다보면 자만심에 우물거리게 되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정신은 조금씩 조금씩 씩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가만히 읽다보면 법화경의 '상불경(常不輕) 보살'의 옥성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상불경 보살은 다른 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예배해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자신을 가장 낮은 계단으로 내려 앉히고 다른 이를 깊이 공경하고 경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이 이 책 갈고 갈피에는 향내가 땀에 배어들듯 스며 있다.

저자 정목스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적개심이 있다면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라고 말한다.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 보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서 알고 있다.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속삭였더니 나의 마음은 안심되며 무심하고 적멸이 온다.

정목스님은 1997년부터 서울대병원 전문의 신회영 교수의 추천을 받아 백혈병 어린이를 돕고 있는데, 이 책의 출간에서 알게 되는 인세 수익 전액을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에 기부하고 있다.

문태준 (시인)



의학의 시선으로 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으로 보는 신화와 의학 문국진 지음

현대 의학과 허황한 세계로 보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결코 연관을 맺지 못할 것 같지만, 신화 속에도 의학은 감춰져 있다.

의학의 원뜻은 주술로 악마와 병마에 시달리는 마귀를 쫓아주는 중간 매개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학을 나타내는 메디신(Medicine)의 기원은 약초와 독초를 이용한 마술에 능했던 메데이아에서 유래한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이아손과 메데이아'와 앤서니 프래더릭 샌디스의 '메데이아'는 주술사로서 악을 제조하는 메데이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림으로 보는 신화와 의학'은 원로 법의학자 문국진(81) 박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고혹적인 풍경 속에서 찾아낸 흥미로운 의학 이야기다.

문 박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극적인 장면들을 화폭에 재현한 명화 130여 점을 독특한 의학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사람들의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피증'을 산토드레마(Xanthoderma)라고 한다. 이 병명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몸을 탐근 산토스 강에서 기원한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이 때문에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두 번에 걸쳐 그린 '파리스의 심판'에선 유독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만날 수 있다.

성병의 일종인 매독의 병명은 시필리스(Syphilis)다. '시필리스'라는 짧은 양치기는 아폴론의 저주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 병의 경과가 매독의 진행과 비슷해서 그의 이름을 따 매독을 시필리스로 부르게 됐다.

아틀라스는 티탄들의 반란에 가담한 죄로 무거운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게 된 거신(巨神)이다. 우리 몸에도 아틀라스가 있다. 머리를 평생 떠받치는 환추(環椎·목뼈)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담·1만6천500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장이라구?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뽀뽀가 있으니
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입술에
비타민을 주지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 명품향 천연의 과일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을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